

21세기 목회현장과 이상적 목사모델

최 덕 성

(교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찰스 스펔전이 설교했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는 한 때 23,000명이 모였다. 그런데 75년 후인 1972년 어느 주일에는 불과 87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스펔전 목사는 가 버렸고 그동안 런던이 변화하였던 것이다. 지역 사회, 문화, 그리고 세계도 변화하였다. 이 교회는 변화하는 사회, 급변하는 목회현장에 대한 새로운 개혁과 갱신이 없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변화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속한 거의 모든 것들이 변화한다. 변화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속한다. 우리가 변화를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치 않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 뿐이다. 목회자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급변하는 목회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일하는 자이다. 복음은 영원하지만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할 현장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교회는 어둠 속에 있는 빛이며, 부패하는 음식물 속에 있는 소금이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부풀게 할 누룩이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있다. 교회는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관, 문화, 정서, 취향을 가진 세대들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적응력을 가질 때 새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

다. 변화의 상징인 21세기는 새 시대의 구조와 문화적, 정서적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도자를 요구한다.

우리는 복음을 세상문화와 혼합 변질시키는 현대주의 신학을 민감하게 경계해 왔다.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속주의적 삶의 형태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복음을 새 시대의 그릇에 담아 전하려는 노력은 현대주의, 세속주의와 구분된다. 급변하는 세상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세상의 변화 자체를 혐오하고 있으면 시대의 변두리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말의 있다. 준비를 잘하라는 뜻이다. 돌발적 변화,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대의 변화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 그리고 교회는 세계사의 흐름의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자위하고 있을 때에 화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

불과 수년 내에 베이비 부머들(Baby Boomers, 1946~1964년 사이에 태어난 전후세대)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이 세대의 인물이다. 이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것과는 크게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목회도 주로 베이비 버스터들(Baby Buster, 1965~1976년 아이에 태어난 세대)을 위한 사역이다. 이들은 전후(戰後)세대와도 다른 정서와 사상을 갖고 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목사는 불변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탁월성과 그것을 새로운 시대적 정서와 문화에 적응시키는 문화적 탁월성을 가진 자이다. 본고는 새 시대에 알맞는 목회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새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목회현장에서 탁월성, 적응력, 생산성을 가진 목사 모델을 그려볼 것이다. 내용이 다소 충격적일 것이지만 이미 들이닥친 시대적 변화 앞에서 고뇌하는 목회자들이라면 본고가 제시하는 목사모델에 흥미와 관심을 가

질 것이라 생각된다.

1. 전전(戰前)시대의 목사모델 : 훈장

한국 개신교가 자생적으로 시작된 후,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883년 이후였다. 선교사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무려 20년간 한국교회의 성장은 기대할 만 하지 못했다. 한국교회가 성장의 궤도에 올라선 것은 한국인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였다. 장로교신학교의 첫 졸업생이 1907년에 배출되었으며, 이 해에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인들이 부흥운동의 주체적 인물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김치와 된장냄새 나는 설교가 외쳐질 때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장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목회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한국교회의 신앙적 특성은 청교도적인 생활과 열정, 칼빈주의적인 교리가 하나로 묶어져 나타났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이상적 목사모델로 등장한 사람은 주기철 목사였다. 평양 산정현교회를 담임하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는 “일사각오”로 진리를 외치며, 양떼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일했다. 두 손으로 성경을 받쳐들고 강단을 지켰으며, 두 발로는 양떼를 돌아보기 위해 교인들의 가정을 열심히 방문하였다. 어린 양을 찾기위해 찾아 나선 선한 목자와 같았다. 민족적 수난의 시대에 압박당하고 박해받는 자들의 지팡이였다. 꾸짖고, 타이르고, 근엄하게 외치는 훈장형 목사였다. 그의 목회활동에 대한 반응은 확실했다. 훈장을 존중했던 당시 사람들은 훈장형 목사를 극진히 존경하였던 것이다. 한국적인 문화와 정서가 그러한 지도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무렵 “훈장”은 다만 훈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목사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인들의 극진한 존경을 받았다. 목사가 귀했던 시절이었고, 종교적 권위가 높이 평가되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성경 고전어, 성경지식, 신조나 교리 등에 남다른 학식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델은 종교개혁 이후, 특히 정통주의 전통하에서 발전해 온 목사모델과 일치한다. 종교개혁시대의 개혁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목사는 교사로서의 목사모델이다. 목사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며 가르치는 사역의 주된 활동은 설교에 있었다. 신학교육의 목적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할 “배운 자”, “선생”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목회자를 사제(Priest), 혹은 감독(Bishop)으로 보는 중세기적인 목사모델로 부터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봉사자”(Diakonos)로서의 목사모델을 재발견한 결과였다.¹⁾

목사는 유대교의 랍비적 위상을 가진 권위있는 교사였다. 목사는 “말씀의 종”으로 여겨졌으며, “오직 말씀”이 강조되고, “십자가에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로서의 목사기능이 강조되었다. 목사는 성경지식을 가진 훈장(Master)이었다.²⁾ 이러한 전통하에서의 신학교육은 말씀의 종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모델은 성경을 신학과 목회의 원천으로 삼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1. Wilhelm Pauck, “The Ministry in the Time of the Continental Reformation”, *The Mini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s*, H. Richard Niebuhr & Daniel Williams ed., New York : Harper & Row, 1983, 131~143.
2. Joseph C. Hough, Jr. & John B. Cobb, Jr. *Christian Identity and Theological Education*, Atlanta : Scholars Press, 1985, 6.

선생 혹은 훈장으로서의 목사모델은 19세기까지도 인기가 있었다. “선생”을 양성한 서양 신학교육이 서양사회에 효과적으로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풍토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가 그러한 사역자를 요구하였다. 그 시대에는 “배운 자”, “선생”이 존경을 받았다. 성경과 신학지식이 많은 자가 “경건한 자”로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 무렵 목사의 권위는 두 가지에 기초해 있었다. 첫째는 그가 배운 성경 및 신학 지식이었으며, 둘째는 그가 속한 교회였다. 풍부한 신학지식을 쌓았고 “말씀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장립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 교인들은 목사의 가르침에 무조건 청종해야 할 의무만이 주어졌던 것이다.

교사 혹은 훈장으로서의 목사모델에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청교도 전통이다. 청교도들은 “목자”로서의 목사모델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목사를 “목회자”, “목자(Pastor)”로 일컫는 것도 실은 청교도 시대의 유산이다. 그들은 목사의 가르치고 설교하는 기능 외에 돌보는 기능을 크게 강조하였다.³⁾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가 묘사하고 있는 「개신교 목사」(The Reformed Pastor)는 열심히 교인들을 돌보는 목자(Pastor)이다.⁴⁾ 청교도들에게 있어서도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였으며, 교회를 위한 선지자의 기능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목사”로서의 기능, 즉 제사장적 기능을 크게 강조하였다. 목사로서의 목사 모델은 영국교회 아래 있는 청교도들과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된 미국사회에 잘 할 수 있었다. 다양한 종교적, 국가적 배경을 가진 신세계의 이민자들은 더 이상 감독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미국에서는 교과주의적 사회구조 때문에 가르치는 것 외에도 “돌보는” 직무를 게을리

3.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출고 “목회모델의 역사”,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제2집 참조.
4. Grand Rapids : Sovereign Grace Pub, 1971.

할 수 없었다.

서구교회는 중세기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동안 감독주의적인 체제에 익숙해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대개 국가교회(State Church)내지 그것에 준하는 체제하에서 발전되어 왔다. 국가교회 체제하에 서구교회 목사들은 대개 동장이나 구청장처럼 자기의 교구를 맡아 주어진 과업들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교회경비와 목사의 생활비는 국가가 지불한다. 종교세를 내면 십일조나 기타 현금을 바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현금과 십일조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는 목회자들 교회들 간에 경쟁이 없다. 교인생활전을 벌일 필요도 없다.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는 불평이나 시비도 별로 없다. 주일예배의 회집인원으로 목사의 목회적 역량을 평가하지도 않는다. 목사나 장로 사이의 긴장도 없다. 여름이나 겨울 한달 가족과 더불어 시원한 곳, 따뜻한 곳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완벽한 노후대책과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훈장으로서의 목사모델은 이러한 사회에서 잘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20세기 목회현장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런데 훈장으로서의 목사 모델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다. 급격한 시대적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중세기에는 10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변화가 20세기에는 한 달도 걸리지 않는다.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크게 달라졌다. 여러가지 변화 중에서도 다음 몇 가지는 유별스런 것들이다.

첫째는 반권위적 현상이다. 여성의 자율성, 비평적 사고, 과학의 발달 등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적 사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이고 맹목적인 권위가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권위가 권위로 여

겨지지 못하게 되었다. 젊은 세대는 반항적이며 기존 사고방식에 대하여 불손하고 어울리지 않는 질문들을 던진다. 엉뚱한 질문들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사고 배경에는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상대주의, 객관적 진리를 거부하는 주관주의가 팽배했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탈구조주의(Deconstructionism)는 사상의 일체의 구조적인 요소를 거절할 때 비로소 실체(Realities)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⁵⁾ 다분히 염세적인 분위기를 지닌 이러한 신(新) 사조 아래서 교육을 받은 자들에게는 목사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의 반항적이고 엉뚱한 태도를 마귀적이라고 생각하든지, 불손하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목회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둘째로 빈번한 이동(Mobilization)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인구의 이동을 갖게 만들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심지어 이 결혼관계에서 저 결혼관계로 쉽게 이동하고 있다. 빈번한 이동은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바꾸었다. 전통적 가치관 세계관을 바꾸었다. 한 교회에 등록하여 일평생 그 교회 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로부터 교회를 일정기간 체류하는 일종의 간이역으로 생각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교회는 그야말로 나그네들을 위한 임시 안식처로 여기게 되었다.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 한 교회의 교인이 되지만 쉽게 다른 도시로 옮겨 가버린다. 산업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급격한 이동을 지닌 현대인들에게는 전원적인 농경문화에 어울리는 목회모델이나 국가교회식의 목회방식은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세째는 선택의 다원화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와 기호에 따라

5. 김성곤, 「탈구조주의 이해」, 서울 : 민음사, 1990.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에는 3개의 방송국이 있었으나 이제는 110개의 채널이 생겨 취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잡지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종교분야에서도 엄청난 다양성이 주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파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고, 이 동이 잦은 교인들로 하여금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심지어 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커졌다. 이 교파에서 저 교파로 옮겨 다니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반권위적 현상, 빈번한 이동 그리고 선택의 다원화가 주어진 교파주의 체제의 목회현장에서 일어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훈장(선생)이 학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훈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목회자가 “자유시장”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이다. 국가교회 체제 하에서는 상상지도 못할 변화가 자본주의 체제하의 목회현장에 찾아왔다. 다소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자유시장”은 소비자가 “왕”으로 행세하는 곳이다. 이 곳은 매력있고 감동을 주는 “상품”이 인기를 끌 수 있는 곳이다. 소비자는 이 “상품”과 저 “상품”을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한다. 아무리 질이 좋은 재료라도 상품화시키지 못하면 소비자의 관심 밖에 있게 되었다. 가시적인 위력을 발휘하거나 신통력이나 탁월성을 가진 목회자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훈장”만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특히 “선생”, “목자”로서의 목사모델을 이상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강단 연기자, 개인적인 실리를 위해 교회를 기업화하는 자, 소위 종교적 “악덕상인”, “악덕훈장” 마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변화

를 싫어한다고 해서 변화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훈장”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무조건 청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먹혀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목회자의 “자유시장화”가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훈장”, “목자” 모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델이 21세기 사람들의 정서로 옷을 바꿔입지 않으면 매력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부흥사 스타일의 목사들이었다. 매력있는 연기력을 가진 “설교가”(Preacher)의 등장이다. 부흥사 타입의 목사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 대교회를 이룩한 목사들은 대부분 이러한 스타일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말씀의 봉사자”로서의 역량과 함께 소비자들의 호감을 끌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자였다. 질 좋은 자료를 현장의 기호에 따라 상품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자료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어울리고 매력을 주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배우고 땀을 흘렸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대거 그들에게로 몰렸고 굶직한 교회들이 등장하였다. 이 현상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였다. 현재, 서울의 대교회적 양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역량을 가진 목사나 교회를 사면하고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이동하고 나면 교인들은 새로운 “상품”을 찾아 나선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는 변두리나 길바닥에 진을 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질 좋은 상품이 여기 있다. 알아달라”고 고함을 질러도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다. 이들이 인기를 끌지 못하는 요인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실제로 질 좋은 재료를 가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현대인의 기호와 정서에 알맞게 “상품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치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의 정서에 어

우리는 그릇에 담아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도 간혹 반대에 부딪혀 왔다. 대형교회를 통해서도 개혁교회의 3대 표지, 즉 말씀, 성례, 권징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작은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3대 표지가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큰교회라고 해서 말씀전파, 성례 그리고 정당한 권징의 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작은교회에서도 권징은 대부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큰 교회에서도 신실한 말씀전파, 성례는 대부분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의 대형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의 3대 표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는 막연한 추측이거나 왜소한 교회 지도자들의 어설픈 변명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목사는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신식교육을 받고 자란 전후세대, 혹은 전후세대의 자녀들에게 어떤 스타일로 가르치느냐가 문제이다. 훈장처럼 내려치고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목사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생각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상매체와 더불어 자란 이들에게 권위적으로 “훈계”하면 그들은 “훈장”을 마치 외국인 대하듯 한다. 언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국인을 앉혀놓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과 같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꾸짖고 고함 지르고 내리치는 소위 “집주는 설교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다. 그러한 정서에 익숙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인간관계의 끈으로 묶어놓은 사람들, 옛 관습을 선호하는 노인들이나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방보다는 서울이 더 심하다. 지방도 곧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교파주의적 자유경쟁지라는 목회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목회나 신학교육은 탁월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3. 21세기 목회현장

베이비 베스터들이 활약하게 될 21세기에는 앞서 지적한 20세기 말의 현상들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시장경쟁력을 핵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함께 종교의 자유로 인한 교파주의, 이로 인한 목회경쟁, 선택의 다양성, 잦은 이동, 전통적 권위의 와해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시대적 변화에 민감히 대처하고 새로운 시대의 필요와 정서에 부응하는 영적인 “상품”을 가진 교회, 생명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 복음을 시대적 정서에 그릇에 담아 전하여 시대적 교감을 일으키게 하는 목회자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후에 자란 세대들은 가난을 모르고 자랐다.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먹고 싶은 것은 먹고, 필요한 것을 대부분 충족시키며 성장해 왔다. 부요한 삶을 누리는 것을 옹당 그래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절약을 모르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즐기려고 한다. 이웃의 어려움이나 사회의 전통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자랐다.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선호할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1세기가 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1세기에는 가정중심의 삶(Cocooning)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집으로 배달되는 피자를 먹으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영화를 감상하는 핵가족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일요일이 되면 식구들이 함께 외출하고 교외로 여행을 즐기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일 저녁예배 회집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가족중심의 사생활이 침해 당하기를 원치 않으며 주일낮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새 시대는 기술과 정보가 더욱 중시될 것이다.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물건을 전화로 주문하고 배달 받고, 주일 아침이면 영상매체를 통해 선택적으로 설교를 듣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자동차를 몰고 가족과 더불어 야외로 나갈 것이며 시시한 이야기, 시시한 책, 시시한 영화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될 것이다.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졸림고 딱딱한 설교는 시시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쉽고 명쾌하고 신선하고 새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요구할 것이다.

탈권위주의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전통적인 권위는 더욱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향은 더 심해질 것이며 남성은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 지배적이고 큰 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을 낳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경제적인 필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문직종을 살려 남성과 동등한 경쟁을 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미국의 여성 55%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도 멀지않아 이렇게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회 안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살림하는 주부들의 외출, 외식이 많아질 것이다.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여자목사도 대거 등장할 것이다.

교회 내에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특별히 앞서 언급한 변화들을 역겹게 생각하고 과거에 집착하고 아성을 쌓으면서 거북이처럼 움추러드는 교회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재세례파나 재건파와 같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종교집단은 점차 쇠퇴될 것이다. “자유시장”에서의 목회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그 외에도 산업의 확장, 세계의 지구촌화, 경제불력의 다극화, 산업구조의 대변혁, 정치적, 사회적 발전, 과학의 발달, 지식의 팽창, 교육수준의 향상, 논리적 사고의 발달, 풍요해진 물질 속에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 비인간화에 대한 반감, 허무주의 사고의 증가, 종교다원

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등은 그것에 따르는 인간심성과 심리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목회자를 요구할 것이다.⁶⁾

4. 21세기의 이상적 목회자 모델

20세기 동안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순절주의의 경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적 입장과 카리스마적 운동을 바람직하다고 여길 수 없다. 감정적인 수단에 의한 영적자극은 인위적이며 배격되어야 한다. 말씀 중심의 강단, 성경중심의 교회교육,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 가르침에 대한 최고의 진리체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를 부인하거나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다. 옛부터 우리의 전통은 그것을 강조해 왔다. 성령의 역사는 오고오는 세대에 계속될 것이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복음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고, 교사로서 그리고 돌보는 목자로서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어떤 정서, 어떤 그릇에 담아 전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대적 정서에 어울리는 목회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지 않으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 다가오는 세기는 신학에 있어서도 성경적 원리와 실천적 기능이 병합강조되는 성경적 기능신학(Biblical Functional Theology)이 인기를 얻게 될

6. Leith Andron, *Dying for Change: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Nashville : Abingdon Press, 1992.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 목사가 갖추어야 할 특징은 무엇인가?

1) 수평적 사고의 지도자

21세기의 시대적 정서에 어울릴 수 있는 목회자는 우선 사물을 보는 눈이 수직적 구조로부터 수평적 구조어로 전환된 자이다. 21세기 사람들은 사람을 유교적 계급의식이나 중세기적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전후세대는 그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통한 교육을 받았다. 민주적 사고를 가진 세대는 사람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본다. 연장자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기 의사를 주저하지 않고 진솔하게 표현한다. 부모에게조차도 무조건 맹종하지는 않는다.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증시하고, 각자 맡은 일의 기능을 증시한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다. 수직적인 사고구조를 가진 목사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버릇없다고 여길 것이며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적응하기 어려운 쪽은 도리어 젊은이들이다. 그들은 획일적이며 교조적인 권위와 질서애의 복종을 싫어한다.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목회자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의 다양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수평적 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며, 초대교회가 가르쳤고 종교개혁자들이 재발견한 원리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교직주의타파는 수직적 구조의 제도와 사고방식을 깨뜨려 수평적 구조로 개혁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각의 기능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다. 집사, 장로, 목사를 포함한 교회 내의 모든 직분 사이에는 유교적 서열이나 중세기적 계급적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동역자들이다. 각 직

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운다는 점에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 직분자가 이 중요성을 알고 행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긍휼을 베풀게 된다⁷⁾.

교회 내의 수직적 사고의 표현은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수직적 사고 구조는 “목사” 보다는 “당회장”을 더 애호하게 한다. 교회운영도 엄격한 서열적 구조에 의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접근은 탈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은 21세기인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을 수 없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직분들 사이에 상호 보충적인 협동과 질서가 요구된다. 재직분은 서로 다른 기능들을 조화, 질서, 협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특히 유교전통의 토양하에 있는 한국교회는 직분에 대한 수평적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목회적 다양성을 요구할 것이다.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동사무회(同事牧會), 즉 팀목회가 요구될 것이다. 선지자적인 기능(Preacher, Teacher, Revivalist), 제사장적 기능(Pastor, Minister, Therapist), 왕적인 기능(Manager, Director, Administrator)이 요구될 것이다.⁸⁾ 당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업무는 팀웍(Team Work)이 될 것이고 담임목사는 팀장이 될 것이다. 수평적 구조에 입각한 교회운영이 아닌 수직적 서열적 접근의 교회운영은 지속적인 불화를 가져오게 되고 종내는 교회를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다. 수평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교회만이 바람직한 성장을 하게 할 것이다. 제도개혁에 앞서서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들어 교회마다 자리잡은 “장로석”은 수직적 사고 구조의 심

7. 필자의 줄고, “한국교회의 계급주의적 직분개혁”, 월간고신, 1990, 10.

8. “팀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월간목회」, (1988, 11), 33~53.

불이다. 유난히 크고 화려한 강단도 마찬가지이다. 강단의 높이가 유난히 높고 회중들과의 거리가 먼 것도 마찬가지이다. 수직적 구조의 사고는 교회를 경직시킨다. 특히 예배를 침통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움추려들게 만든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만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방문했다가도 무겁고 경직된 분위기에 눌러 돌아서 버릴 것이다.

2) 문화적 탁월성을 가진 목회자

어느 교회는 70년대 초에 새 교회당을 지으면서 사방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동산언덕 위에 지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동산 언덕 위에 올라 오기 힘들어 동산 아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선택했다. 동산 아래 교회는 발전되었으나 동산 위 교회는 발전하지 못했다. 80년대 초 도심지에 위치한 큰 교회는 새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교회당은 웅대하게 지었으나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차장 마련은 사치스럽고 특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장로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는 자동차 문화 시대가 되었다. 주차장이 마련된 교회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 두 경우 교회성장의 저조는 모두 문화적 탁월성을 지니지 못한 탓에 기인한다.

21세기의 교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파적인 카테고리가 별로 중요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리한 위치의 건실한 교회, 생동감있는 교회, 꿀송이 보다 더 달콤한 “상품”, 즉 그런 설교가 있는 교회, 활기찬 교회를 선택할 것이다. 특정교파나 교단에 대한 충성보다 매력적인 설교, 영성, 경건한 삶을 지닌 특정한 목사에게 더 끌리게 될 것이다. 교단이란 비용이 많이 드는 과거의 유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교단적 행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자기갱신, 시대적 부응을 위

한 부단한 개혁이 없는 교단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말씀의 순수성, 영성, 경건성 외에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목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교회가 얼마나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하는 것이다.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 얼마간 등록을 하지 않고 출석하는 교인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안정성을 가진 교회, 영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기차고 신선한 예배가 있는 교회, 감동적인 설교가 있는 교회를 선택할 것이다.

21세기에는 교회가 점점 더 대형화될 것이다. 구멍가게가 점차 줄어들고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혹은 24시간 편의점이 인기를 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은 개척 교회보다는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갖춘 교회를 선호할 것이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게 할 것이다. 신선한 음악프로그램, 청년프로그램, 체육시설, 충분한 주차장, 영아부시설, 유치원, 청년부 교육시설, 훌륭한 성가대, 편리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다부제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교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단일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부페식당처럼 목회적 다양성을 제공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취사선택을 하도록 하는 교회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앞서 밝힌대로 대형교회 목사들은 목사단을 구성하여 팀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목사는 많지 않을 것이며 상담전문, 청소년전문, 독신자, 노인복지, 제자훈련, 전도, 음악, 청지기훈련, 심방,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백화점이 많은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목사단을 이루어 다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목사가 속한 교단, 출신학교, 출신지방, 교회의 거리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3) 영상적 설교자

전후세대와 그들 자녀들의 세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그들의 채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채널이 맞지 않으면 교감이 생기지 않으며 따라서 대중적 흡인력을 지닐 수 없다. 서양인에게 치즈와 버터가 어울린다면 한국인에게는 된장과 김치가 어울리듯이 영원히 변치 않지만 복음을 그것이 전해지는 곳의 정서와 문화의 그릇에 알맞게, 즉 “소비자”들의 기호에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 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베이비 부머나 베이비 버스터 시대에 출생한 자들은 텔레비전과 더불어 살아왔다. 영국 성인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16~18시간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일생 중 온전히 8년이라는 시간을 밤낮 꼬박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보내는 것과 같다. 1970년과 1971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은 일주일에 23.3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다고 한다.

21세기의 목사는 텔레비전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⁹ 텔레비전은 거의 모든 것을 영상화한다. 영상화는 인간의 우측 뇌를 움직인다. 우측 뇌와 좌측 뇌는 기능이 다르다. 좌측 뇌는 언어, 논리, 수리, 추론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보통 사람은 좌측 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따라서 논리적 이해가 어렵다. 우측 뇌는 직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활동하지만 시간과 공간개념에 따라 움직인다. 영상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한다. 일반대중은 우측 뇌가 발달되어 있다. 고등교육을 통해 논리적인 훈련을 계속적으로 쌓은 사람들은 좌측 뇌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마저도 교회에서는 좌

9. 존 스토틀,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풍만출판사, 1985), 79~86.

측 뇌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높은 산의 정상 봉오리에 올라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볼 때의 신선함을 원한다. 그것은 우측 뇌가 제공하는 것이다. 텔레비전을 통해 우측 뇌를 발달시켜 온 현대인 대중에게는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설교, 즉 좌측 뇌로 수용하기에 어려운 설교를 하면 흥미를 잃는다. 우선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는다. 알아듣는다고 해도 가슴에 감동으로 와 닿을 수 없다. 텔레비전은 논리적인 진술이나 설명이기 보다는 감각적이고 드라마틱하다. 어릴 때부터 영상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은 교리적이고 논설적인 설교를 싫어하고 영상적인 설교를 좋아한다.

텔레비전의 특성은 시청자가 언제든지 스위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나와 연설을 한다고 해도 듣기 싫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스위치를 꺼버린다. 임금이 연설을 한다고 해도 싫으면 스위치를 다른 채널로 돌려버릴 수 있다. 영상매체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찾아와 자리를 잡고 앉았어도 목사의 설교가 진부하고, 뻔한 소리, 가벼운 기분 전환도 고려하지 않는 설교를 할 때는 주저없이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설교가 시작되면 3분을 지나지 않아 스위치를 꺼버릴 것이다. 무디고 단조로우며 지루한 내용일 경우 거의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교는 독백이며 허공을 치고 말게 된다.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졸고 있거나 무감각한 표정으로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 속에서 이미 스위치를 꺼 버렸거나, 아니면 들릴 듯 말듯하게 낮게 들어 놓았다는 증거이다.

설교자가 텔레비전과 경쟁을 하려면 텔레비전의 다양성, 칼라, 예화, 유모어, 빠른 움직임, 영상화를 도입해야 한다. 설교의 메시지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싸이클, 즉 채널에 맞추라는 뜻이다. 현대인과 호흡할 수 있는 설교방법은 설교를 설교의 정서와 회중의 정서가 만나는 조우(Encounter),

설교자가 그려주고 있는 신앙인물과 회중석의 교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일시(Identificaton), 구체적인 상을 지닌 단어들, 그림언어들을 사용하여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은 영상적 설교가 필수적이다. 설교자가 그려주는 세계로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넘치는 신선미, 청취가 가득 담긴 냄새, 새로운 충격을 호흡하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대중적 흡인력을 가진 설교는 대화체(Narration) 설교이다.¹⁰ 마주 보고 친구처럼 대화하듯 설교하면서 회중을 이야기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이야기는 회중의 기억에 오래 남으면 감동적이다. 우측 뇌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삶에 관련된 소박한 예화도 종종 사용될 수 있다. 미국 달라스신학교는 세대주의적 학교로서 석의적 강해설교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초신자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교방식, 즉 이야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4) 호소하는 설교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고구조를 지닌 세대는 일방적인 설교를 싫어한다. 훈장식 설교스타일은 대개 큰 목소리로 제스처를 많이 쓰는 웅변조 설교이다. 이러한 설교를 듣는 젊은이들은 설교내용의 옳고 그름에 앞서서 정서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옳다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와 닿을 때 행동한다. 수평적 구조로 사물을 대하듯 현대인들은 수직적 구조의 설교, 강압적이고, 내려치고, 위압적인 스타일의 설교를 싫어한다. 친편일률적이고 울

10. Wayne B. Robinson, ed., *Journeys toward Narrative Preaching* (NewYork : The Pilgrim Press, 1990), 참조.

법주의적인 설교자, 전술한 바와 같은 내려치고 꾸짖고 고향지르는 훈장형 설교자는 인기가 없을 것이다.

친구의 심정을 가진 간절한 호소, 자연스러운 대화체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경계하는 설교(고전 4:14, 살전 2:7, 11), 위로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지도하는 치유적 설교, 카운셀러, 아버지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호소하는 설교가 먹혀들 것이다. 책망도 사랑이라는 콘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21세기에는 “이것은 해야 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설교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신세기인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적이고 타당성을 중시하며 논리적인 타당성을 찾는 훈련을 받아왔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식 보다는 선택의 여지를 주고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회중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을 좋아한다.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설득을 선호한다. 왜 행하지 않아야 하는가도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을 행하지 말라고 설교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콘텍스트 안에서 하라는 것이다.

21세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호소적이고 설득력있는 설교를 원할 것이다. 개인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삶 자체가 막심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삶의 현장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치유적인 설교가 그들 속으로 파고들어 갈 수 있다. 대중적 호소력은 그때 나타나게 된다. 21세기 목회는 많은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크고 작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의 정신적 고뇌들을 치유목회가 인기를 끌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이혼율은 증가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의 목회는 상담, 위로적 설교를 요구할 것이다. 인간의 불안과 절망은 죄의 공

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인간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 설교가 더욱 요구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는 치유적 목회자(Therapist Pastor)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5) “참된 권위”를 가진 목회자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강단을 높게 하고 강대상을 크게 하고 화려한 까운을 입고 목소리를 근엄하게 한다고 생기는 것일까? 서열적 계급을 강조하고 질서를 중시시켜 당회장권을 확고히 할 때 생기는 것일까? 아니면 히브리어, 헬라이어 지식이 많거나 성경상식이 많다고 생기는가? 그렇지 않다.

목사의 권위는 신실한 말씀전파, 영적인 힘,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생활로부터 오는 것이다. 21세기 교회 안의 아이러니는 목회자 홍수시대, 말씀의 홍수시대 가운데서도 참 말씀을 찾아 갈급해 하는 사람들이 동분서주 맑은 물을 찾아 나서는 일일 것이다. 무차격 신학교를 통해 쏟아져 나오는 목회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많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성경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는 설교자가 청중에게 먹혀들 것이다. 진실한 강단관리를 통해 참다운 성경적 설교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설교다운 설교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세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없이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 21세기는 과거의 모든 세대가 그러했듯이 더욱 탁월한 말씀의 종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인류사회의 집단적인 능력,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로 인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성한 물질적인 부를 누리게 될 것이며, 수요를 충족시키게 될 것이다.¹¹⁾ 인류문명이 시작된 이래 궁핍에서 벗어나서 물질적

11. 21세기 위원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1993, 10.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세상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에이즈가 만연하고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인 야콥병으로 인해 세상은 공포를 갖게 될 것이다.¹²⁾ 세상은 변해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질주의, 성적, 도덕적 부패와 향락주의, 도시마다 소돔과 고모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서 영원히 변치않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 성경에 충실한 메세지를 가진 말씀의 종,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인 조망(Biblical Perspectives)을 제시할 수 있는 탁월한 설교자가 요구된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우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분명해야 한다. 논지(Thesis)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논지가 없는 설교는 논리적 훈련을 받고 자라온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성경본문에 대한 강해,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도출된 메세지를 일목요연하게 논지화하여 전달할 때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강해설교라는 이름 하에 많은 경우 석의설교를 하는 경우를 본다. 성경본문에 대한 석의설교 보다는 그 본문의 주된 메세지를 파악하고 그것의 의도(Intentionality)를 붙잡아 현대인이 관심을 갖는 방법으로 흥미롭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해설교이다. 강단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 보라. 나는 오늘 20분 혹은 30분 설교를 통해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논지는 대부분 하나의 문장(One Sentence)으로 집약 정리될 수 있다.

12. 크로이츠 펠트 야콥병은 80년대의 에이즈, 90년대의 만성피로증후군과 함께 인류의 3개 기병으로 불린다. 잠복기간은 4~21년이며, 발병하면 기억력, 시력, 집중력이 저하되고 병이 진전됨에 따라 정신장애,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식물인간으로 변해 1년 이내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망자의 뇌는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특징이며, 50~77세의 고령층이 잘 걸린다.

성령님의 손에 붙잡힌 말씀사역자,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영적인 탁월성을 가진 목회자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목회적 흡인력을 지닐 수 없다. 시대가 세속화 될수록 배나 영적이고 기도하는 사역자, 세속화에 오염되지 않은 목사에 대한 인기는 높아만 갈 것이다. 부도덕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순수하고 정직한 목사, 경건한 삶을 사는 목사,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목사를 요구할 것이다. 아부형 목사가 아니라 “참목자”, “진실한 목사”를 요구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설교에 있어서 탁월성을 지닌 목사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결 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선 정부는 두 사람의 고급관리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냐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침략할 것이다”라고 보고한 반면 하동 출신 초유사 김성일은 “절대로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는 침략할 것을 감지했으나 그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동요되어 패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당시의 당파간의 갈등으로 피치 못해 그렇게 보고했다는 말도 있다. 이 두 보고를 듣고 조선조정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일부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관리들은 “임금께서 일본이 침략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침략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국민들을 나무랐다. 그러나 침략하고 안하는 것은 조선 임금님의 마음이나 조선 정부의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

“자유시장”, “목회경쟁력”, “생산성” 등의 개념은 바람직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회현장의 현실이 그

렇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달갑게 생각지 않고 변화자체를 거부한다고 해서 변화가 중지되거나 물러가는 것은 아니다. 조선정부가 “일본은 침략하지 않는다. 임금님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도 침략하고 안하고는 일본의 침략은 침략자들의 마음에 달렸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목회현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다. 교회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부터 떠나 있는 무인도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다. 지금까지 개혁주의 전통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¹³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강조가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경시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살고 있다(We are not of the world, but in the world). 이 점을 무시할 때 효과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담당할 수 없다.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시대의 정서를 이해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적 적응력을 가진 자가 살아 남게 된다.

이러한 강조는 말씀 자체를 변질시키거나 개혁주의 전통을 포기 하라는 뜻이 아니다. 목회현장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말씀사역과 목회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교인이 선택의 자유를 지닌 “소비자”의 위치에 있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목사의 고민은 소비자 의식을 갖고 있

13. Henry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2), 1.

는 회중에게 복음의 순수성, 교사나 목자로의 목회모델을 이상으로 삼는 개혁주의적 목회지역화에 대한 타협없이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성경 본문의 해석이 적용을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적용이 해석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한 청지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그것이 심겨질 토양, 즉 목회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거쳐 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라는 목회현장, 즉 자기 중심적이고, 필요성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회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형태로 바꾸어 놓으려면 현장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직, 교인들을 돌보는 자로서의 목사직을 포기함 없이, 변화하는 현장에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시대적 정서에 맞는 설교자, 부단한 자기 갱신, 신정보 흡수, 현장에 대한 지식의 축적, 복음을 현대인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요리하는 고도의 기술,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수직적인 사고구조를 버리고 수평적인 눈을 가진 지도자, 문화적 탁월성, 대중적 흡인력을 가진 설교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죄를 경계하며 호소하고 설득하는 아버지 같은 설교자, 성경적 메시지를 제공하고 설교의 요점이 분명한 설교자, 영적인 깊이와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도덕적 영적 모범으로서의 목사가 요구된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이상적 목사상은 하나님의 말씀, 현장지식과 문화적 탁월성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는 경건한 영적인 삶으로 무장된 목사이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있다는 점을 동시에 중시하는 목회자가 요청되는 것이다.

2,000년대 한국의 목회 현장

현 유 광
(교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론

2천년대가 이제 7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날에는 100년이 걸려야 이루어지던 변화가 오늘날에는 1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 주후 1500년경 레오나드 다빈치는 날뜰(flying machine)을 어설피게나마 설계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400년 후인 1903년 라이트 형제(The Wright brothers)가 최초의 엔진을 사용한 비행기를 만듦으로 현실화 되었다. 그 후 44년 뒤인 1947년에는 미국의 찰스 예이거(Charles Yeager)가 벨 엑스 1호기(Bell X-1)로 최초의 초음속 비행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러고나서 10년 후인 1957년에는 소련이 스푸트닉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므로 오늘날 왕복 우주 비행시대를 열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여는 격변의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변화를 주시하며 내일의 세계를 준비하여야만 한다. 사람들은 21세기에 이 세상에 있게 될 변화를 예측하며 여러 각도로 시나리오를 써 보고 있다.¹⁾

1. 김의원, 미래의 세계와 한국교회 사명 (서울 성광문화사, 1991), 205~222, 참고.